

이사회 공백 조선대 업무 차질·갈등 증폭

징계위는 회의도 못 열고 이사장실·사무처장실은 봉쇄

법인 "업무처리 30% 불과...봉쇄 안풀면 공권력 투입"

조선대 '이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무 차질을 비롯한 학교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사회의 '이사 부존재'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가 하면, 대학 내부 단체의 법인 이사장실·사무처장실 봉쇄로 법인 업무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측은 급기야 오는 22일 임시이사회 개최 전까지 봉쇄 조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과 민·형사상 소송도 검토키로 해 자칫 학내 구성원들과의 충돌 가능성이마저 우려되고 있다.

18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이사 7명(정원 9명, 현 이사 7명)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여태껏 후속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명의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 간 갈등으로 선출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학교측 요청을 받아 교육부가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 진행될 지 불투명하다.

당장, 이사회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각종 학교 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사회는 지난 3월 공연예술무용과 교

수들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징계 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사가 없는 탓에 실질적 징계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회의조차 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의결된 또다른 징계 제정안도 비슷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법인측은 징계위원회 위원의 경우 '법인 이사 또는 해당 학교 교원'으로 구성하지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대학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한 법인 이사장실·사무처장실 봉쇄 문제로 업무 차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측은 현재 업무 처리량을 3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인측은 이날 말까지 교육용 기본재산과 법인의 수익용 재산에 대한 신고 안건,

법인세 관련 처리 문제 등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여있지만 사무실 봉쇄로 현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학 내부 단체인 민주동우회 소속 회원 등은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 임원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사무실 봉쇄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법인측은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문제 등을 들어 오는 22일 예정된 제92차 이사회 전까지 정상화를 요청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봉쇄 조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과 민·형사상 소송도 검토키로 해 자칫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조선대는 오는 22일 제 92차 이사회를 열고 일반이사 및 개방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휴일 잇은 세월호 수색 18일 세월호 수습현장인 목포신항에서 작업 관계자들이 선체 수색 및 지장물 제거·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철뉴스

세월호 내일 1차 수색 마무리

44곳 중 41곳 진행...이달말부터 화물칸 수색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1차 수색 작업이 늦어도 20일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객실 1차 수색이 거의 마무리됐다. 객실 3층과 5층에 대한 1차 수색을 19일 오전이나 늦어도 20일까지 매듭짓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수습본부는 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협의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1~2층 화물칸 수색이 들어가, 늦어도 8월 말까지 미수습자 수색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수색은 이날 3층 3-11구역과 3-13구역, 5층 5-8구역에서 지장물 제거 및 수색이 이뤄졌다. 이날까지 객실 수색은

전체 44구역 중 41개 구역 93%에 이르는 곳까지 진행됐다.

유해는 6월14일 3층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나온 이후 4일째 수습되지 않고 있다.

현장수습본부는 빠르면 이달 말에 화물칸 수색이 들어간다.

앞서 이날 국내 전문가에게 의뢰한 '세월호 화물칸 안정성 기술 검토' 결과가 현장수습본부와 선체조사위원회에 각각 전달됐다.현장수습본부는 선체조사위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1~2층 화물칸 수색 방안을 정해 후속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나비 "소녀상 건립 저속 안돼"

"5개 자치구 경쟁적 설치...유악한 소녀상 모습도 고민해야"

'평화의 소녀상'이 전국 곳곳에서 건립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광주나비'는 18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추진되는 소녀상 건립에 대해 "저속으로 진행되거나 구경 간 경쟁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주나비는 의견서에서 "소녀상이 힘 없고 가련한 소녀의 모습으로 남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해방 이후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

지 않는 일본 정부와 굴욕적인 한일 합의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인권도시 광주에서 만들어지는 소녀상은 어떤 모습인지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나비는 이어 "건립 준비와 함께 사후관리 문제, 향후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며 호소했다.

광주나비는 지난 2015년 12월28일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터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만든 단체다.

/김한영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01:33
 해질 19:50 달지기 14:13

'찜통' 6월

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 하세요.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조금	19/34	보성	구름조금	15/33
목포	구름조금	19/28	순천	구름조금	19/33
여수	구름조금	20/29	영광	구름조금	17/30
나주	구름조금	16/33	진도	구름조금	16/29
완도	구름조금	19/29	전주	구름조금	18/31
구례	구름조금	15/33	군산	구름조금	18/30
강진	구름조금	17/33	남원	구름조금	16/33
해남	구름조금	17/30	홍산도	구름조금	18/25
장성	구름조금	15/32			

◇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남	0.5	남동	남	0.5
남부	남동	남	0.5~1.0	남동	남	0.5~1.0
남해	남서	서	0.5	남서	서	0.5
서부	남서	서	0.5~1.0	남서	서	0.5~1.0
면해(서)	동	남동	0.5~1.0	동	남동	1.0~1.5

◇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매우높음 자외선
- 보통 미세먼지

◇ 주간 날씨

날짜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날씨	☀	☀	☀	☁	☀	☀	☀
기온	18/32	19/34	19/33	21/29	20/30	20/30	20/29

반달곰 출산...지리산 경사났네

두마리 늘어 47마리 서식...공단 "먹을 것 주거나 촬영 금물"



지리산 자연에 적응 중인 반달가슴곰 두마리가 새끼 한 마리씩을 출산했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8일 밝혔다.

반달가슴곰 암컷 한 마리(RF-34·개체번호는 무인카메라로, 다른 개체 RF-25)는 새끼 울음소리를 통해 출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됐다.

어미곰들은 교미기에 다른 수컷들과 함께 지내는 게 관찰됐으며, 바위굴에서 동면하던 올해 1월 말 출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끼 반달곰 2마리가 태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리산국립공원에는 모두 47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살게 됐다.

공단은 지리산 탐방 중 새끼 이용시 반달가슴곰과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주의의를 당부했다. 지정된 탐방로가 아닌 새끼를 이용하면 반달가슴곰의 서식지

와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단은 산행 중 반달가슴곰의 기적이 멀리서 느껴지면 호감을 불거나 손을 흔드는 등 인간의 존재를 알리면서 신속히 그 곳을 벗어나라고 조언했다. 갑자기 곰을 만나면 시선을 피하지 말고 뒷걸음질로 벗어나는 게 좋다고 했다.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촬영은 절대 금물이다.

공단 관계자는 "새끼를 동반한 어미곰을 만날 경우 위험성이 커진다"면서 "새끼 이용,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 및 취사를 삼가야한다"고 말했다.

지리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멸종위기종(1급)이자 천연기념물(329호)인 반달가슴곰 중(種)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철호기자 khk@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축전전문점, 대형전시장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 743㎡ | 전문병의원 및 푸에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상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목격하라!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신남부권인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은 물론 유서, 해남고, 해남중학교, 해남고, 해남제일중,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복합 테마상가
 - 푸드, 의류, 의료, 미용, 학원, 법조특화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상품!
 -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 불가능!
 - 두번의 수익! 101 프리미엄 가보

분양·임대 **1577-1901**

새마을금고 | 이주금상
 새마을 | 진보종합건설(주)